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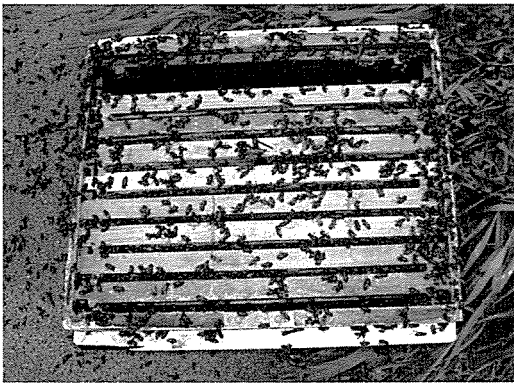
# 태풍 에위니아 피해 현황

최근 장마철 폭우와 함께 북상한 제3호 태풍 에위니아로 인해 여러 지역에 피해가 속출했다. 특히 태풍이 강원지역을 덮치면서 강원지역에서 양봉업을 하고 있는 농가들도 많은 피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피해 실태 파악을 위해 본 협 전기현 회장과 황협주 부회장, 최규철 사무총장 그리고 이만수 강원 지회장과 정동화 강원 사무국장이 피해 지역을 방문했다.

이날 방문한 지역은 인제, 양구, 방산 지역으로, 특히 이 곳의 피해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었다. 실제 김정수 인제 분회장은

덕산리에서 3단 150군과 단상 20군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양봉창고와 함께 이 모든 것이 사라졌다. 양구 방산면 현리에서 양봉업을 하고 있는 손종력 회원은 사육하던 120군(12매 단상)을 이번 태풍으로 잃었다.

이처럼 태풍으로 생계수단을 잃은 사람들에게는 앞으로의 생활이 막막할 것이다. 농림부의 지원대책에 따르면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경우 종전에는 1군당 127,000원을 지원해 주던 것을, 1군당 140,760원(정부보조50%, 용자30%, 자부담20%)으로 조정하였다. 또한 피해 농가의 피해율에 따라 이미 지원받은 농축산경영자금 상환을 연기해주고, 5백억원의 재해대책경영자금을 농가당 1천만원까지 지원키로 했다.



벌통에 폐사된 꿀벌들-김정수 분회장 양봉장



김정수 인제 분회장이 로얄제리를 생산하던 제리틀을 들고 아쉬워하고 있다.



산사태로 완전히 무너져 내린 창고-김정수 분회장 양봉장



토사가 쓸러간 흔적-양구 손종력 회원 양봉장